

大學 새마을運動의 活性化를 爲한 大學生의 基礎意識 調査

— 濟州大學校 二學年 學生을 中心으로 —

姜 昌 赫 · 尹 瑛 斌

目	次
I. 序 論	III. 要 約
1. 研究의 意義	IV. 提 言
2. 調査對象 및 方法	參考文獻
II. 結 果	

I. 序 論

1. 研究의 意義

오늘날 우리民族의 歷史的 課題인 民族中興 實踐要綱으로서의 새마을 運動은 汎國民的 運動으로 擴散되어 “大學에서도 大學教育의 理念인 研究, 教育, 奉仕를 實現키 爲하여는 研究機能과 教育機能이 보다 強化되어야 한다는” 目的아래 健全大學 風土造成 및 精神秩序 確立을 爲하여 大學 새마을運動에 關한 研究 및 學生이 主體가 된 새마을運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研究 및 運動은 一定한 基盤이 없이 散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 運動의 活性化를 爲하여는 大學이 主體가 되어야 하며 學生들의 意識構造 把握에 關한 基礎研究가 더욱 必要할 것으로 思慮된다.

그러므로 本 研究를 通하여 大學 새마을運動의 活性化 方案을 마련하는데 礎石이 되는 勿論, 그동안 本 大學에서 이루어져 왔었던 大學 새마을運動에 關한 研究의 뒤를 이어 學生들의 意識에 關하여 概括적으로 調査研究하여 本大學 學生들의 意識構造를 보다 더 자세히 糾明하여 大學 새마을運動의 活性化와 學生指導에 一助를 마련하는데 本研究의 趣旨와 意義가 있다.

2. 調査對象 및 方法

本 調査는 濟州大學校의 二學年 36 個 學科에 在學中인 1,597 名 가운데 24 個 學科의 993 名을 對象으로 大學生의 意識調査에 關한 書籍과^{1,2,3,6,8)} “'83 年度 新入生 意識構造”⁷⁾의 設問內容을 參照하여 作成한 設問紙를 가지고 1984 年 9 月 11 日 부터 9 月 21 日사이 즉, 2 學

期初에 各 學科의 事務室을 通하여 調査를 實施하였으며 回收率은 表1과 같다.

(表1) 大學別 設問紙 回收率

(單位:名)

單大別	配付	回收	回收率(%)
人文大學	195	174	89.2
社會科學大學	209	183	87.6
師範大學	256	212	82.8
農科大學	176	161	91.5
海洋科學大學	157	147	93.6
計	993	877	88.3

II. 結果

1. 大學生活의 滿足度

大學生活의 滿足與否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을 考察하여 보면 表2와 같다.

(表2) 大學生活의 滿足度

項目	區分	單大別										性別		全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大		海大		男	女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1) 매우 만족하고 있다.	2	1.1	10	5.5	4	1.9	15	9.3	4	2.7	30	5.3	5	1.6	35	4.0
2) 대체로 만족하다.	33	19.0	28	15.3	40	19.0	26	16.1	43	29.3	118	21.0	52	16.5	170	19.4
3) 그저 그렇다.	72	41.4	68	37.2	66	31.1	46	28.6	59	40.1	200	35.7	111	35.1	311	35.5
4) 약간 불만이다.	41	23.6	40	21.9	44	20.8	40	24.8	26	17.7	112	20.0	79	25.0	191	21.8
5) 매우 불만이다.	24	13.8	34	18.6	38	17.9	33	20.5	3	2.0	84	15.0	48	15.2	132	15.1
6) 무응답	2	1.1	3	1.6	20	9.4	1	0.6	12	8.2	17	3.0	21	6.6	38	4.3
計	174	100.0	183	100.1	212	100.1	161	99.9	147	100.0	561	100.0	316	100.0	877	100.1

(1) 全般的인 傾向

大學生活의 滿足度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을 살펴보면 滿足스럽게 여기는 學生이 23.4%, 不滿足이 36.9%의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대체로 不滿足의 傾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性別 比較

性別로는 男學生인 경우는 大學生活을 滿足스럽게 여기는 學生이 26.3%, 滿足스럽지 못하게 여기는 學生은 35%이며 女學生에 있어서는 滿足이 18.1%, 滿足스럽지 못하다는 學生이 40.2%로 나타나고 있어 一般的으로 女學生들이 男學生보다 大學生活에 適應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 單大別 比較

이를 다시 單大別로 適應되지 못하고 있는 傾向을 알아보면 農大(45.3%), 社會科學大(40.5%), 師範大(38.7%), 人文大(37.5%), 海洋科學大(19.7%)의 順으로 大學生生活에 對하여 滿足치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農大의 學生들이 大學生生活에 가장높게 不適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入學하기前과 現在의 本校에 對한 느낌

入學前의 本校에 對한 이미지와 지금의 느낌이 어떤지를 알아보면 表3 과 같다.

(表 3) 學 校 에 對 한 느 낌

反應項目	區分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全 體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1) 생각보다 좋다.	37	21.3	24	13.1	33	15.6	14	8.7	28	19.0	85	15.2	51	16.1	136	15.5
2) 그저 그렇다.	86	49.4	98	53.6	108	50.9	83	51.6	74	50.3	298	53.1	151	47.8	449	51.2
3) 생각보다 못하다.	48	27.6	60	32.8	70	33.0	62	38.5	45	30.6	175	31.2	110	34.8	285	32.5
4) 무응답	3	1.7	1	0.5	1	0.5	2	1.2	0	0	3	0.5	4	1.3	7	0.8
計	174	100.0	183	100.0	212	100.0	161	100.0	147	99.9	561	100.0	316	100.0	877	100.0

(1) 全般的인 傾向

本校에 對한 印象에 있어서는 入學하기前 생각보다 좋다는 學生이 15.5%, 생각보다 못하다는 學生은 32.5%의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아직도 本校에 對한 理解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2) 性別 比較

이것을 性別로 살펴보면 男學生에 있어서는 入學하기前 생각보다 좋다는 學生이 15.2%, 생각보다 못하다는 學生은 31.2%로 나타나고 있으나 女學生에 있어서는 入學하기前 생각보다 못하다는 學生이 34.8%를 보여주고 있어 대체적으로 女學生들이 男學生들 보다 本校에 對한 理解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3) 單大別 比較

이를 다시 單大別로 보면 農大 38.5%, 師範大 33.0%, 社會科學大 32.8%, 海洋科學大 30.6%, 人文大 27.6%의 順으로 아직도 本校에 對하여 入學하기前 생각보다 못하다고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3. 專攻選擇 動機

學生들이 專攻을 選擇하게 된 動機는 表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表 4) 專 攻 選 擇 動 機

反 應 項 目	區 分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 文 大	社 會 大	師 範 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1) 졸업후 취직의 요망	9	5.2	21	11.5	32	15.1	8	5.0	10	6.8	53	9.4	27	8.5	80	9.1
2) 학비의 절약	1	0.6	4	2.2	37	17.5	0	0	0	0	21	3.7	21	6.6	42	4.8
3) 적성에 맞아서	107	61.5	46	25.1	50	23.6	45	28.0	31	21.1	161	28.7	118	37.3	279	31.8
4) 장래 전망이 밝 다고 생각되어	14	8.0	71	38.8	20	9.4	36	22.4	48	32.7	150	26.7	39	12.3	189	21.6
5) 성적에 맞추려고	19	10.9	20	10.9	28	13.2	42	26.1	42	28.6	100	17.8	51	16.1	151	17.2
6) 권유에 따라	15	8.6	16	8.7	34	16.0	20	12.4	14	9.5	55	9.8	44	13.9	99	11.3
7) 무 응 답	9	5.2	5	2.7	11	5.2	10	6.2	2	1.4	21	3.7	16	5.1	37	4.2
計	174	100.0	183	99.9	212	100.0	161	100.1	147	100.1	561	99.8	316	99.8	877	100.0

(1) 全 般 的 인 傾 向

全般的으로 專攻選擇을 하는데 있어서 學生들의 動機를 알아보면 學生 自信의 適性에 맞아서 選擇했다는 學生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將來自信의 進路가 밝게 생각되어서가 21.6%, 우선 合格하기 위하여 成績에 맞추어 選擇했다는 學生이 17.2%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性 別 比 較

性別에 따라서 專攻을 選擇하게 된 動機는 男學生의 경우에 本人의 適性을 고려한 경우가 28.7%로서 가장 높으나 合格 우선의 심리에 의하여 成績에 맞추어 지망한 경우가 17.8%나 되며 장차의 직업과 연관이어서 將來展望이 밝게 생각되어 지망했다는 경우도 26.7%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건전한 학과선택의 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女學生에 있어서는 適性에 맞아서 專攻選擇을 했다는 學生이 37.3%, 成績에 맞추어 合格하기 위해서가 16.1%, 주위의 勸諭에 따라서 專攻選擇을 했다는 應答이 13.9%로 나타나고 있어, 男學生에 비해서 女學生이 自信의 適性에 따라 專攻選擇한 比率이 높으며 勸諭에 의해서 專攻選擇을 한 比率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單 大 別 比 較

이를 다시 單大別로 專攻選擇의 動機를 보면 自信의 適性에 맞아서 專攻을 選擇했다는 應答은 人文大 61.5%, 農大 28.0%, 社會科學大 25.1%, 師範大 23.6%, 海洋科學大 21.1%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將來展望이 밝게 생각되어서에 있어서는 社會科學大 38.8%, 海洋科學大 32.7%, 農大 22.4%, 師範大 9.4%, 人文大 8.0%의 順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선 合格하기 위해서 成績에 맞추어 專攻選擇을 한 경우는 海洋科學大 28.6%, 農大 26.1%, 師範大 13.2%, 人文大, 社會科學大 各各 10.9%의 順으로 應答하고 있다.

4. 學科選擇에 있어서 가장 影響을 끼친 사람

學科選擇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影響을 끼친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表 5와 같다.

(表 5) 學科選擇時 影響을 끼친 사람

反應項目	區分		單大別					性別		全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大	海大	男	女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1) 高교 선생님	14	8.0	27	14.8	43	20.3	25	15.5	17	11.6	74	13.2	52	16.5	126	14.4
2) 부모·형제	18	10.3	32	17.5	63	29.7	24	14.9	23	15.6	94	16.8	66	20.9	160	18.2
3) 자기 자신	126	72.4	112	61.2	94	44.3	90	55.9	88	59.9	338	60.2	172	54.4	510	58.2
4) 친구	8	4.6	5	2.7	4	1.9	10	6.2	7	4.8	21	3.7	13	4.1	34	3.9
5) 선배	6	3.4	6	3.3	2	0.9	8	5.0	9	6.1	23	4.1	8	2.5	31	3.5
6) 무응답	2	1.1	1	0.5	6	2.8	4	2.5	3	2.0	11	2.0	5	1.6	16	1.8
計	174	99.8	183	100.0	212	99.9	161	100.0	147	100.0	561	100.0	316	100.0	877	100.0

(1) 全般的인 傾向

學生들이 學科選擇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影響을 끼친 사람은 自己自信이라는 應答이 58.2% 父母·兄弟의 影響을 받았다는 學生이 18.2%, 高校 先生님의 指導에 따랐다라는 學生은 14.4%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高等學校에 있어서의 進學指導 成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2) 性別 比較

性別로 學科選擇에 있어서 가장 影響을 끼친 사람을 比較해 보면 男·女學生 共히 같은 傾向을 띄고 있으며 男學生에 있어서는 自己自信이 60.2%, 父母·兄弟가 20.9%, 高校 先生님이 16.5%로 나타나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다시 單大別로 보면 農大를 除外한 4個 單科大 學生들은 全般的인 傾向과 같은 應答을 나타내고 있으며, 學科選擇에 있어서 가장 影響을 끼친 사람이 自己自信이라는 應答에 있어서는 人文大가 72.4%, 社會科學大 61.2%, 海洋科學大 59.9%, 農大 55.9%, 師範大는 44.3%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5. 專攻學科에 對한 滿足度

專攻學科의 滿足與否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은 表 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表 6) 專攻學科에 對한 滿足度

項目	反應	區分										性 別		全 體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答	%	應答	%	應答	%			
1) 만족스럽게 여긴다.	69	39.7	74	40.4	67	31.6	50	31.1	51	34.7	201	35.8	110	34.8	311	35.5	
2) 그저 그렇다.	76	43.7	73	39.9	83	39.2	68	42.2	70	47.6	235	41.9	135	42.7	370	42.2	
3) 불만족스럽게 여긴다.	27	15.5	35	19.1	61	28.8	41	25.5	26	17.7	121	21.6	69	21.8	190	21.7	
4) 무응답	2	1.1	1	0.5	1	0.5	2	1.2	0	0	4	0.7	2	0.6	6	0.7	
計		174	100.0	183	99.9	212	100.1	161	100.0	147	100.0	561	100.0	316	99.9	877	100.1

(1) 全般的인 傾向

專攻學科의 滿足與否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은 學科에 對한 興미가 그저 그렇다는 學生이 42.2%, 學科에 興미를 갖고 있는 學生은 35.5%, 興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學生이 21.7%의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대체로 學科에 興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어 專攻科目에 대해 점차 適應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性別 比較

이를 性別로 比較해서 살펴보면 男學生에 있어서는 學科에 대한 興미가 그저 그렇다는 學生이 41.9%, 專攻學科에 대한 興미를 가지고 있는 學生은 35.8%, 아직은 興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學生이 21.6%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女學生에 있어서는 똑같은 順으로 42.7% 34.8%, 21.8%를 보여주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이것을 다시 單大別로 보면, 學科에 對해 興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社會科學大 34.7%, 師範大 31.6%, 農大 31.1%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은 學科에 대해 興미를 느끼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師範大 28.8%, 農大 25.5%, 社會科學大 19.1%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6. 專攻에 對한 不適應 要因

學生들이 專攻에 對하여 適應하지 못하는 要因을 살펴보면 表7과 같다.

(表 7) 專攻에 對한 不適應 要因

項目	反應	區分										性 別		全 體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答	%	應答	%	應答	%		
1) 적성에 맞지 않아서	15	8.6	17	9.3	22	10.4	32	19.9	16	10.9	74	13.2	28	8.9	102	11.6
2) 시설 및 교수가 진이	35	20.1	85	46.4	58	27.4	48	29.8	57	38.8	202	36.0	81	25.6	283	32.3

3) 학과 내용이 생각과 달라서	32	18.4	27	14.8	21	9.9	22	13.7	20	13.6	73	13.0	49	15.5	122	13.9
4) 장래 전망이 밝 지 못한것 같아서	34	19.5	7	3.8	50	23.6	18	11.2	19	12.9	80	14.3	48	15.2	128	14.6
5) 학과 내용이 어려워서	8	4.6	9	4.9	11	5.2	8	5.0	5	3.4	23	4.1	18	5.7	41	4.7
6) 무 응 답	50	28.7	38	20.8	50	23.6	33	20.5	30	20.4	109	19.4	92	29.1	201	22.9
計	174	99.9	183	100.0	212	100.1	161	100.1	147	100.0	561	100.0	316	100.0	877	100.0

(1) 全般的인 傾向

全般的으로 學生들이 專攻에 對한 不適應 要因은 施設 및 教授陣이 32.3%, 將來展望이 밝지 못하다고 생각 되어서는 14.6%, 學科內容이 入學前 생각과 달라서가 13.9%, 自己의 適性에 맞지 않아서는 11.6%의 順으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2) 性別 比較

이것을 性別로 보면 男學生에 있어서는 施設 및 教授陣이 36.0%, 將來展望이 밝지 못한것 같아서가 14.0%, 適性에 맞지 않아서라는 學生은 13.2%, 學科內容이 入學前 생각과 달라서가 13.0%이며, 女學生에 있어서는 施設 및 教授陣이 25.6%, 學科內容이 入學前 생각과 달라서가 15.5%, 將來展望이 밝지 못한것 같아서 15.2%의 順으로 專攻에 對한 不適應 要因을 나타내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單大別 專攻에 對한 不適應 要因은 施設 및 教授陣이라는 項目에서는 46.4%로 社會科學大 學生들이 가장높게 應答하고 있으며 將來展望이 밝지 못한것 같아서라는 項目에서는 師範大 學生들이 23.6%로 가장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7. 現在의 感情

現在 學生들의 心情에 대해서는 表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表 8) 現 在 의 感 情

反 應 項目	區 分		單 大 別					性 別		全 體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1) 본 대학에 入學한 것은 잘했다	34	19.5	30	16.4	29	13.7	32	19.9	32	21.8	102	18.2	55	17.4	157	17.9
2) 학과 선택만은 잘못했다	29	16.7	24	13.1	50	23.6	36	22.4	23	15.6	91	16.2	71	22.5	162	18.5
3) 아직은 잘 모르겠다	65	37.4	74	40.4	71	33.5	50	31.1	62	42.2	211	37.6	111	35.1	322	36.7
4) 타 대학으로 옮기고 싶다	31	17.8	43	23.5	40	18.9	35	21.7	29	19.7	131	23.4	47	14.9	178	20.3
5) 무 응 답	15	8.6	12	6.6	22	10.4	8	5.0	1	0.7	26	4.6	32	10.1	58	6.6
計	174	100.0	183	100.0	212	100.1	161	100.1	147	100.0	561	100.0	316	100.0	877	100.0

(1) 全般的인 傾向

學生들의 現在の 感情은 本 大學에 入學한것은 잘했다는 學生이 17.9%로 나타나는 반면에 他大學으로 옮기고 싶다는 學生이 20.3%가 되고 있어 아직도 本校에 適應을 못하고 있는 學生이 一部 있음을 알 수 있다.

(2) 性別 比較

性別로는 男學生에 있어서 他大學으로 옮기고 싶다는 學生이 23.4%, 本大學에 入學한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學生이 18.2%이며, 女學生에서는 本大學에 入學한것은 잘했다는 應答이 17.4%, 他大學으로 옮기고 싶다는 學生은 14.9%의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이것을 다시 單大別로 살펴보면 本大學에 入學한것은 잘했다는 應答에서 海洋科學大 21.8%, 農大 19.9%, 人文大 19.5%, 社會科學大 16.4%, 師範大 13.7%의 順으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他大學으로 옮기고 싶다는 項目에서는 社會科學大 23.5%, 農大 21.7%, 海洋科學大 19.7%, 師範大 18.9%, 人文大 17.8%의 順으로 나타내고 있다.

8. 卒業後의 專攻活用

學生들은 卒業後의 專攻活用に 대해서 表9와 같은 應答을 하고 있다.

(表 9) 卒業後의 專攻活用

反應 項目	區分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1) 꼭 전공을活用하겠다.	34	19.5	41	22.4	40	18.9	28	17.4	27	18.4	116	20.7	54	17.1	170	19.4
2) 가능한 전공을活用하겠다.	98	56.3	100	54.6	98	46.2	72	44.7	54	36.7	249	44.4	173	54.7	422	48.1
3) 그때 상황에 따르겠다.	34	19.5	27	14.8	51	24.1	41	25.5	50	34.0	131	23.4	72	22.8	203	23.1
4) 전공을活用할 생각은 없다.	5	2.9	11	6.0	20	9.4	19	11.8	16	10.9	57	10.2	14	4.4	71	8.1
5) 무응답	3	1.7	4	2.2	3	1.4	1	0.6	0	0	8	1.4	3	0.9	11	1.3
計	174	99.9	183	100.0	212	100.0	161	100.0	147	100.0	561	100.1	316	99.9	877	100.0

(1) 全般的인 傾向

卒業後의 專攻活用に 對해서는 專攻을活用하겠다는 學生이 67.5%, 狀況에 따르겠다는 學生은 23.1%, 專攻分野로 進出하지 않겠다는 學生은 8.1%의 順으로 反應을 보이고 있다.

(2) 性別 比較

性別로 卒業後의 專攻活用に 對하여 알아보면 卒業後에 專攻分野로 進出하겠다는 應答에 있어서 男學生은 65.1%, 女學生은 71.8%의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체로 男學生보다 女學生

이 專攻分野로의 進出意志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겠다.

(3) 單大別 比較

單大別로는 社會科學大 77.0%, 人文大 75.8%, 師範大 65.1%, 農大 62.1%, 海洋科學大 55.1%의 順으로 學生들이 專攻을 活用할 수 있는 方向으로 卒業後에 進出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自然系보다 人文系가 專攻分野로의 進出意志가 높음을 알 수 있다.

9. 校內生活의 重點方向

學生들의 重點的인 校內生活 方向에 對해서는 表 10 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表 10) 校內生活의 重點方向

項目	區分	單大別										性 別		全 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答	%														
1) 학과공부		0	0	39	21.3	65	30.7	23	14.3	29	19.7	103	18.4	53	16.8	156	17.8
2) 취업대비		43	24.7	66	36.1	48	22.6	36	22.4	61	41.5	177	31.6	77	24.4	254	29.0
3) 진학준비		31	17.8	17	9.3	14	6.6	23	14.3	12	8.2	66	11.8	31	9.8	97	11.1
4) 전반적인 교양 지식 함양		20	11.5	39	21.3	62	29.2	53	32.9	37	25.2	141	25.1	70	22.2	211	24.1
5) 유학 준비		71	40.8	8	4.4	1	0.5	13	8.1	1	0.7	34	6.1	60	19.0	94	10.7
6) 취미·씨클活動		4	2.3	5	2.7	14	6.6	3	1.9	1	0.7	16	2.9	11	3.5	27	3.1
7) 기 타		4	2.3	4	2.2	1	0.5	5	3.1	5	3.4	11	2.0	7	2.2	18	2.1
8) 무응답		1	0.6	5	2.7	7	3.3	5	3.1	1	0.7	13	2.3	7	2.2	20	2.3
計		174	100.0	183	100.0	212	100.0	161	100.1	147	100.1	561	100.2	316	100.1	877	100.2

(1) 全般的인 傾向

學生들이 校內生活의 重點的인 方向을 全般的으로 보면 卒業後의 就業對備가 29.0%, 一般 敎養知識 涵養이 24.1%, 學科工夫가 17.8%, 留學準備가 10.7%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서 卒業後의 就業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2) 性別 比較

男·女學生 共히 校內生活에 있어서 重點的인 方向이 卒業後의 就業對備라는 應答이(男學生 31.6%, 女學生 24.4%)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女學生에 있어서 特異한 것은 卒業後의 留學準備를 위하여라는 應答이 19.0%나 나타나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單大別로 보면 人文大에서는 留學準備(40.8%), 社會科學大는 就業對備(36.1%), 師範大에서는 學科工夫(30.7%), 農大는 全般的인 敎養知識 涵養(32.9%), 海洋科學大는 就業對備(41.5%)로 가장 높게 重點方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人文大 學生들은 學科工夫라는 應答은

전혀 없으나 留學準備라는 應答에는 가장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人文大에는 女學生이 다수를 이루기 때문이라 사려되며, 師範大 學生들은 比較的 進學과 留學準備에는 관심이 없으며 上位 成績으로 우선 教師 발령을 받기 위하여 學科工夫에 重點을 두는것으로 사려된다.

10. 教授와의 對話頻度

學生들과 教授間的 對話頻度を 보면 表1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表 11) 教授와의 對話頻度

反 應 項 目	區分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1) 가져보지 못했다.	78 44.8	101 55.2	116 54.7	86 53.4	62 42.2	283 50.4	160 50.6	443 50.5		
2) 가끔 갖는다.	90 51.7	71 38.8	88 41.5	58 36.0	74 50.3	240 42.8	141 44.6	381 43.4		
3) 많이 갖는다.	5 2.9	8 4.4	5 2.4	14 8.7	5 3.4	26 4.6	11 3.5	37 4.2		
4) 무응답	1 0.6	3 1.6	3 1.4	3 1.9	6 4.1	12 2.1	4 1.3	16 1.8		
計	174 100.0	183 100.0	212 100.0	161 100.0	147 100.0	561 99.9	316 100.0	877 99.9		

(1) 全般的인 傾向

學生들 中 教授와 對話를 가져보지 못했다는 學生은 50.5%, 對話經驗이 있는 學生은 47.6% (가끔 對話하는 學生 43.4%, 자주 對話하는 學生 4.2%)로 나타나고 있다.

(2) 性別 比較

男·女學生別로는 男學生에 있어서는 對話經驗이 없는 學生은 50.4%, 經驗있는 學生이 47.4%로 나타나고 있으며 女學生에 있어서는 이와 비슷하게 對話를 가져보지 못했다는 學生이 50.6% 對話經驗이 있는 學生은 48.1%를 보여주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單大別로는 教授와 對話經驗이 없다는 應答에 社會科學大 55.2%, 師範大 54.7%, 農大 53.4%, 人文大 44.8%, 海洋科學大 42.2%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教授와 對話經驗이 있다는 應答에는 人文大 54.6%, 海洋科學大 53.7%, 農大 44.7%, 師範大 44.0% 社會科學大 43.2%의 順으로 應答하고 있다.

11. 先輩와의 關係

學生들의 先輩와의 거리감을 살펴본 結果, 表12와 같이 應答하고 있다.

(表 12) 先輩와의 關係

項目	區分		單大別										性 別		全 體			
	反 應	應 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 答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1) 아주 가깝게 지낸다.		33	18.9	35	19.1	45	21.2	39	24.2	31	21.1	128	22.8	55	17.4	183	20.9	
2) 그저 그렇다.		74	42.5	88	48.1	105	49.5	59	36.6	63	42.9	250	44.6	134	42.4	384	43.8	
3) 약간 어색하다.		53	30.5	35	19.1	46	21.7	39	24.2	42	28.6	123	21.9	92	29.1	215	24.5	
4) 멀리 지낸다.		14	8.1	18	9.8	15	7.1	19	11.8	9	6.1	46	8.2	29	9.2	75	8.6	
5) 무응답		0	0	7	3.8	1	0.5	5	3.1	2	1.4	14	2.5	6	1.9	20	2.3	
計		174	100.0	183	99.9	212	100.0	161	99.9	147	100.1	561	100.0	316	100.0	877	100.1	

(1) 全般的인 傾向

학생들의 先輩와의 關係를 全般的으로 알아 보면 원만한 사이로 볼 수 있는 學生이 64.7%이며, 약간 어색하거나 멀리 지내는 學生이 33.1%로 나타나고 있다.

(2) 性別 比較

이것을 男·女學生別로 볼 때 先輩와의 사이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女學生(59.8%)보다 男學生(67.4%)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男學生의 활달한 性格에 起因된다고 볼 수 있겠다.

(3) 單大別 比較

單大別로 학생들의 선배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師範大 學生들이 70.7%로 가장 높게 先輩와의 사이가 원만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간 어색하거나 멀리 지낸다는 應答에 있어서는 人文大 學生들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2. 가장 어려운 問題

學生들은 現在의 가장 어려운 問題는 表 13 과 같다고 應答하고 있다.

(表 13) 가장 어려운 問題

項目	區分		單大別										性 別		全 體			
	反 應	應 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 答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1) 학비 및 용돈 조달		60	34.5	53	29.0	69	32.5	43	26.7	47	32.0	191	34.0	81	25.6	272	31.0	
2) 학과공부		29	16.7	18	9.8	38	17.9	20	12.4	28	19.0	75	43.4	58	18.4	133	15.2	
3) 이성교제		21	12.1	19	10.4	15	7.1	20	12.4	14	9.5	59	10.5	30	9.5	89	10.1	
4) 교우관계		17	9.8	23	12.6	27	12.7	14	8.7	8	5.4	39	7.0	50	15.8	89	10.1	
5) 교수와의 관계		20	11.5	41	22.4	37	17.5	28	17.4	32	21.8	107	19.1	51	16.1	158	18.0	

6) 건강문제	6	3.4	6	3.3	6	2.8	16	9.9	5	3.4	32	5.7	7	2.2	39	4.4
7) 없다	9	5.2	9	4.9	9	4.2	11	6.8	8	5.4	29	5.2	17	5.4	46	5.2
8) 기타	6	3.4	6	3.3	6	2.8	3	1.9	2	1.4	13	2.3	10	3.2	23	2.6
9) 무응답	6	3.4	8	4.4	5	2.4	6	3.7	3	2.0	16	2.9	12	3.8	28	3.2
計	174	100.0	183	100.1	212	99.9	161	99.9	147	99.9	561	100.1	316	100.0	877	99.8

(1) 全般的인 傾向

全般的으로 볼 때 學生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學費 및 용돈 調達이 31.0%, 教授와의 關係가 18.0%, 學科工夫가 15.2%, 異性關係와 交友關係가 各各 10.1%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性別 比較

學生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는 問題를 男·女學生 比較하여 보면 共히 (男學生 34.0%, 女學生 25.6%) 學費 및 용돈 調達이 가장 힘들다고 하고 있으며, 教授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女學生(16.1%)보다 男學生(19.1%)이 더욱 어렵게 여기고 있고, 學科工夫에 있어서는 男學生(13.4%)보다 女學生(18.4%)이 힘들게 여기고 交友關係에 있어서는 男學生(7.0%)보다 女學生(15.8%)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이것을 項目別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單科大學을 보면 學費 및 용돈 調達에서는 人文大 34.5%, 教授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社會科學大 22.4%, 學科工夫에서는 海洋科學大 19.0% 異性交際는 農大가 12.4%, 交友關係는 師範大가 12.7%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13. 問題의 解決을 爲한 議論對象者

學生들이 고민이 있을 때 議論對象으로는 누구인가에 對해서는 表 14 와 같이 나타났다.

(表 14) 問題의 解決을 위한 議論對象者

反應項目	區分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答 %							
1) 부모·형제		39 22.4	33 18.0	38 17.9	28 17.4	22 15.0	92 16.4	68 21.5	160 18.2
2) 교 수		3 1.7	8 4.4	4 1.9	8 5.0	3 2.0	17 3.0	9 2.8	26 3.0
3) 친 구		124 71.3	115 62.8	150 70.8	85 52.8	102 69.4	359 64.0	217 68.7	576 65.7
4) 선 배		4 2.3	14 7.7	15 7.1	29 18.0	17 11.6	69 12.3	10 3.2	79 9.0
5) 무 응 답		4 2.3	13 7.1	5 2.4	11 6.8	3 2.0	24 4.3	12 3.8	36 4.1
計		174 100.0	183 100.0	212 100.1	161 100.0	147 100.0	561 100.0	316 100.0	877 100.0

(1) 全般的인 傾向

全般的으로 學生들이 問題解決을 위한 議論對象을 보면 친구가 65.7%, 父母兄弟는 18.2% 先輩는 9.0%, 教授가 3.0%의 順으로 問題가 있을때 議論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性別 比較

性別로는 男·女學生 共히 친구를 議論對象者로 생각하는 것이 (男學生 64.0%, 女學生 68.7%)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學生들이 議論對象으로 여기는 各 項目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單科大學을 보면 친구라는 應答과 父母·兄弟에 대해서는 人文大가 各各 71.3%,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先輩라는 應答과 教授라는 應答에서는 農大가 18.0%, 5.0%로 各各 가장 높게 나타났다.

14. 學費 調達方法

學生들의 學費 調達方法을 보면 表 1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表 15) 學費 調達方法

項目	區分 反 應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應答	%				
1) 부 모		146	83.9	149	81.4	169	79.7	115	71.4	128	87.1	432	77.0	265	83.9	637	79.5
2) 형 제		5	2.9	7	3.8	9	4.2	4	2.5	3	2.0	21	3.7	7	2.2	28	3.2
3) 친척이나 친지		3	1.7	4	2.2	3	1.4	3	1.9	2	1.4	12	2.1	3	0.9	15	1.7
4) 자기 자신 (아르바이트)		6	3.4	9	4.9	9	4.2	16	9.9	6	4.1	34	6.1	12	3.8	46	5.2
5) 장학금		13	7.4	9	4.9	13	6.1	18	11.2	7	4.8	35	6.2	25	7.9	60	6.8
6) 기 타		1	0.7	2	1.1	1	0.5	3	1.9	0	0	6	1.1	1	0.3	7	0.8
7) 무응답		0	0	3	1.6	8	3.8	2	1.2	1	0.7	21	3.7	3	0.9	24	2.7
計		174	100.0	183	99.9	212	99.9	161	100.0	147	100.1	561	99.9	316	99.9	877	99.9

(1) 全般的인 傾向

全般的으로 學生들의 學費 調達方法을 보면 父母님 부담 79.5%, 獎學金에 의해 6.8%, 自己自信이 5.2%, 兄弟부담이 3.2%, 친척 또는 친지부담이 1.7%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性別 比較

男·女學生에 따라 學費 調達方法은 다소 차이가 있어 父母님 부담에 있어서는 男學生 (77.0%)보다 女學生 (83.9%)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自己自信이 解決한다는 應答에 있어서는 女學生 (3.8%)보다 男學生 (6.1%)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學生들의 學費 調達方法에 따라 單大別로 比較해 보면 父母님 부담에 있어서는 海洋科學大 87.1%, 獎學金에 의해서는 農大 11.2%, 自己自信이라는 應答에서도 農大 9.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5. 아르바이트의 目的

學生들의 아르바이트 目的에 對해서는 表16 과 같이 나타났다.

(表 16) 아르바이트의 目的

反 應 項 目	區 分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 文 大	社 會 大	師 範 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1) 학 비 조 달	21	12.1	29	15.8	39	18.4	26	16.1	16	10.9	82	14.6	49	15.5	131	14.9
2) 용 돈 조 달	54	31.0	41	22.4	82	38.7	30	18.6	49	33.3	159	28.3	97	30.7	256	29.2
3) 사 회 경 험	44	25.3	46	25.1	27	12.7	49	30.4	31	21.1	142	25.3	55	17.4	197	22.5
4) 기 타	12	6.9	3	1.6	6	2.8	7	4.3	5	3.4	21	3.7	12	3.8	33	3.8
5) 무 응 답	43	24.7	64	35.0	58	27.4	49	30.4	46	31.3	157	28.0	103	32.6	260	29.6
計	174	100.0	183	99.9	212	100.0	161	99.8	147	100.0	561	99.9	316	100.0	877	100.0

(1) 全般的인 傾向

全般的으로 學生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目的에 있어서는 용돈조달 29.2%, 社會經驗 22.5% 學費調達 14.9%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2) 性別 比較

男·女學生別로 아르바이트의 目的은 용돈조달에 있어서는 男學生(28.3%)보다 女學生(30.7%)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社會經驗이란 反應에 있어서는 女學生(17.4%)보다 男學生(25.3%)이 높게 反應을 보이며, 학비조달 目的으로는 男學生(14.6%)보다 女學生(15.5%)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이를 다시 單大別로 學生들의 아르바이트 目的을 보면, 師範大, 海洋科學大, 人文大에서는 용돈조달이 目的이라는 反應이 38.7%, 33.3%, 31.0%의 順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農大, 社會科學大에서는 社會經驗이 아르바이트의 目的이라는 反應이 30.4%, 25.1%의 順으로 가장 높게 反應을 보이고 있다.

16. 將來 원하는 職業

學生들이 將來 원하는 職業은 表17 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表 17) 將 來 원 하 는 職 業

反 應 項 目	區 分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 文 大	社 會 大	師 範 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1) 정 치 인	5	2.9	15	8.2	3	1.4	6	3.7	3	2.0	23	4.1	8	2.5	31	3.5

2) 행정가	6	3.4	8	4.4	2	0.9	5	3.1	2	1.4	23	4.1	0	0	23	2.6
3) 교육자	46	26.4	15	8.2	133	62.7	15	9.3	14	9.5	94	16.8	129	40.8	223	25.4
4) 군인	5	2.9	6	3.3	0	0	4	2.5	2	1.4	15	2.7	2	0.6	17	1.9
5) 사업가	17	8.8	56	30.6	10	4.7	40	24.8	31	21.1	132	23.5	22	7.0	154	7.6
6) 사회사업가	24	13.8	17	9.3	10	4.7	8	5.0	6	4.1	37	6.6	28	8.9	65	7.4
7) 종교인	3	1.7	0	0	0	0	5	3.1	1	0.7	5	0.9	4	1.3	9	1.0
8) 예술가	16	8.2	2	1.1	9	4.2	2	1.2	5	3.4	10	1.8	24	7.6	34	3.9
9) 농·수산업	1	0.6	5	2.7	0	0	30	18.6	25	17.0	56	10.0	5	1.6	61	7.0
10) 관광업	11	6.3	15	8.2	1	0.5	1	0.6	4	2.7	13	2.3	19	6.0	32	3.6
11) 회사원	6	3.4	13	7.1	3	1.4	5	3.1	20	13.6	29	5.2	18	5.7	47	5.4
12) 공무원	19	11.0	10	5.5	10	4.7	19	11.8	21	14.3	51	9.1	28	8.7	79	9.0
13) 과학자	0	0	0	0	5	2.4	10	6.2	6	4.1	21	3.7	0	0	21	2.4
14) 기타	11	6.3	10	5.5	9	4.2	8	5.0	5	3.4	29	5.2	14	4.4	43	4.9
15) 무응답	4	2.3	11	6.0	18	8.5	3	1.9	2	1.4	23	4.1	15	4.7	38	4.3
計	174	99.8	183	100.1	212	100.3	161	99.9	147	100.1	561	100.1	316	99.8	877	99.9

(1) 全般的인 傾向

學生들이 將來 원하는 職業으로는 教育者 25.4%, 公務員 9.0%, 事業家 7.6%, 社會事業家 7.4%, 農水産業 7.0%, 會社員 5.4%, 藝術家 3.6%, 觀光業 3.6%, 政治家 3.5%, 行政家 2.6%, 科學者 2.4%, 軍人 1.9%, 宗教人 1.0%의 順으로 反應을 보이고 있다.

(2) 性別 比較

將來的 職業觀에 對해 性別로 比較하여 알아보면 男學生에서는 事業家 23.5%, 教育者 16.8%, 農水産業 10.0%, 公務員 9.1%, 社會事業家 6.6%, 會社員 5.2%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女學生에 있어서는 教育者 40.8%, 社會事業家 8.9%, 公務員 8.7%, 藝術家 7.6%, 事業家 7.0%, 觀光業 6.0%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女學生들이 比較的 安定的인 教師職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 單大別 比較

單大別로 學生들의 職業觀에 對해 알아본 結果는 人文大에서는 教育者(26.4%), 社會事業家(13.8%), 社會科學大는 事業家(30.6%), 師範大에서는 教育者(62.7%), 農大는 事業家(24.8%), 農水産業(18.6%), 海洋科學大에서는 事業家(21.1%), 農水産業(17.0%)의 順으로 各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各 大學別로 專攻과 關係가 있는 分野로 많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師範大에서는 무려 62.7%의 學生들이 教育者를 희망하고 있다.

17. 進路 指導의 希望與否

學生들은 卒業後의 進路에 對한 指導 希望與否에 있어서 表18과 같이 應答하고 있다.

(表 18) 進路指導의 希望與否

項目	區分 反 應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 答 %														
1) 원한다.	147	84.5	139	76.0	162	76.4	109	67.7	110	74.8	406	72.4	261	82.6	667	76.1
2) 원치 않는다.	15	8.6	14	7.7	17	8.0	16	10.0	13	8.8	51	9.1	24	7.6	75	8.6
3)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11	6.3	23	12.6	26	12.3	31	19.3	23	15.6	88	15.7	26	8.2	114	13.0
4) 무응답	1	0.6	7	2.8	7	3.3	5	3.1	1	0.7	16	2.9	5	1.6	21	2.4
計	174	100.0	183	100.1	212	100.0	161	100.1	147	99.9	561	100.1	316	100.0	877	100.1

(1) 全般的인 傾向

卒業後의 進路에 對한 희망여부에 있어서는 76.1%의 學生들이 원하고 있으며 원치 않는다는 學生은 불과 8.6%에 그치고 있다.

(2) 性別 比較

男·女學生別로는 男學生(72.4%)보다 女學生(82.6%)이 높게 進路指導를 희망하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單科大學別로 比較하여 보면 人文大가 84.5%로 가장 많이 進路指導를 희망하고 있으며 農大가 67.7%로 가장 적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本 大學의 發展可能性 豫測

앞으로 本 大學의 發展可能性에 對해 學生들은 表 19와 같이 豫測하고 있다.

(表 19) 本 大學의 發展可能性 豫測

項目	區分 反 應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文大	社會大	師範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 答 %														
1)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62	35.6	52	28.4	65	30.7	50	31.1	55	37.4	188	33.5	96	30.4	284	32.4
2)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76	43.7	81	44.3	89	42.0	45	28.0	63	42.9	192	34.2	151	47.8	343	39.1
3) 현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14	8.0	22	12.0	27	12.7	30	18.6	17	11.6	80	14.3	30	9.5	110	12.5
4) 조금 나빠질 것이다.	4	2.3	9	4.9	12	5.7	14	8.7	6	4.1	32	5.7	13	4.1	45	5.1
5) 알수 없다.	12	6.9	15	8.2	17	8.0	17	10.6	4	2.7	49	8.7	16	5.1	65	7.4
6) 무응답	6	3.4	4	2.2	2	0.9	5	3.1	2	1.4	20	3.6	10	3.2	30	3.4
計	174	99.9	183	100.0	212	100.0	161	100.1	147	100.1	561	100.0	316	100.1	877	99.9

(1) 全般的인 傾向

學生들은 本校의 發展可能性에 對해 앞으로 더욱 나아지리라고 豫測하는 學生이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現狀態로 維持될 것이라는 學生은 12.5%, 조금 나빠질 것이라는 學生이 5.1%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의 學生이 本校 發展可能性에 대하여 낙관적인 豫測을 하고 있다.

(2) 性別 比較

男·女學生 共히 本校는 더욱 發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學生이 가장 높게 (男學生 77.7% 女學生 78.2%) 나타내고 있다.

(3) 單大別 比較

單大別로 比較하여 本 大學이 더욱 發展 할 것이라는 應答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大學은 海 洋科學大 80.3%이며, 가장 적게 나타난 大學은 農大로서 59.1%를 나타냈다.

19. 좋은 大學의 要件

좋은 大學이란 세가지 要件 選擇에 對해서 學生들의 反應은 表 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20) 좋은 大學의 要件

反 應 項 目	區 分		單 大 別					性 別		全 體						
			人 文 大	社 會 大	師 範 大	農 大	海 大	男	女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應 答	%				
1) 학생 모두가 학교에 대한 일체감이 높은 대학	100	19.2	106	19.3	118	18.6	95	19.7	84	19.0	323	19.2	180	19.0	503	19.1
2) 면학풍토가 잘 갖추어진 대학	121	23.2	115	20.9	143	22.5	112	23.2	87	19.7	358	21.3	220	23.2	578	22.0
3) 졸업생의 취업율이 높은 대학	59	11.3	55	10.0	54	8.5	63	13.0	51	11.6	197	11.7	85	9.0	282	10.7
4) 교육시설이 좋은 대학	82	15.7	77	14.0	110	17.3	67	13.9	80	18.1	260	15.4	156	16.5	416	15.8
5) 우수한 학생이 많은 대학	33	6.3	35	6.4	38	6.0	26	5.4	18	4.1	91	5.4	59	6.2	150	5.7
6) 좋은 교수가 많은 대학	72	13.8	88	16.0	117	18.4	73	15.1	33	7.5	236	14.0	147	15.5	383	14.6
7) 역사가 오래된 대학	13	2.5	14	2.6	5	0.8	12	2.5	5	1.1	35	2.1	14	1.5	49	1.9
8) 장학혜택이 많은 대학	16	3.1	17	3.1	8	1.3	17	3.5	18	4.1	57	3.4	19	2.0	76	2.9
9) 무응답	26	5.0	42	7.7	43	6.8	18	3.7	65	14.7	126	7.5	68	7.2	194	7.4
計	522	100.1	549	100.0	636	100.2	483	100.0	441	99.9	1683	100.0	948	100.1	2631	100.1
	(174)		(183)		(212)	(161)	(147)		(56)		(316)		(87)			

() : 學生數이며 1名이 세가지 應答을 하였음.

(1) 全般的인 傾向

全般的으로 學生들이 좋은 大學이란 要件選擇에 있어서는 勉學 風土가 잘 갖추어진 大學이 22.0%, 學生모두가 學校에 對한 一體感이 높은 大學 19.1%, 教育施設이 좋은 大學 15.8%, 좋은 教授가 많은 大學 14.6%, 卒業生의 就業率이 높은 大學이 10.7%라는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學生들의 學究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겠다.

(2) 性別 比較

性別에 따른 좋은 大學 要件選擇은 男·女學生 모두 全般的인 傾向과 같은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反應率은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勉學 風土가 잘 갖추어진 大學이란 應答에서 男學生은 21.3%이나 女學生은 23.2%를 보이고 있고, 教育施設이 좋은 大學이라는 應答에서는 男學生 15.4%, 女學生 16.5%로 나타났고 좋은 教授가 많은 大學이라는 應答에서는 男學生 14.0%, 女學生 15.5%를 보여주고 있으나 卒業生의 就業率이 높은 大學이라는 應答에 있어서는 女學生이 9.0%이나 男學生은 11.7%를 나타내고 있어 男學生들이 女學生보다 卒業後의 就業에 對해 많은 關心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女學生은 男學生보다 勉學的인 意欲을 알 수 있겠다.

(3) 單大別 比較

좋은 大學 要件選擇에 對하여 單大別로 比較하여 보면 人文大學은 全般的인 傾向과 똑 같은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나, 社會科學大, 師範大, 農大에서는 똑 같이 勉學 風土가 잘 갖추어진 大學(社會科學大 20.9%, 師範大 22.5%, 農大 23.2%), 學生 모두가 學校에 對한 一體感이 높은 大學(社會科學大 19.3%, 師範大 18.6%, 農大 19.7%), 좋은 教授가 많은 大學(社會科學大 16.0%, 師範大 18.4%, 農大 15.1%), 教育施設이 좋은 大學(社會科學大 14.0%, 師範大 17.3%, 農大 13.9%), 卒業生의 就業率이 높은 大學(社會科學大 10.0%, 師範大 8.5%, 農大 13.0%)의 順으로 全般的인 傾向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卒業生의 就業率이 높은 大學이라는 應答에서는 農大 13.0%와 海洋科學大 11.6%가 가장 많이 應答하고 있어 自然科學系統의 學生들이 就業欲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겠다.

III. 要 約

大學 새마을運動 活性化 方案을 마련하는 데 礎石이 되고자 그 동안 本 大學에서 이루어져 왔던 大學 새마을運動에 關한 研究의 뒤를 이어 學生들의 意識에 關하여 概括的으로 調查, 研究하고 學生들의 意識構造를 보다 더 자세히 규명하고자 하는 데 目的을 둔 本 研究는 本 大學의 2學年 36個 學科에 在學中인 1,597名 가운데 24個 學科의 993名을 對象으로 調查 研究하였던 바 새로 發見된 事實은 다음과 같다.

1. 大學 生活의 滿足度

- (1) 全般的인 傾向은 比較的 不滿足한 편으로 나타났다. (滿足 23.4%, 不滿足 36.9%)
- (2) 性別로는 女學生이 男學生보다 大學 生活에 不滿足을 표시하고 있다.

2. 入學後의 適應傾向

- (1) 入學後의 大學 生活의 適應 傾向을 全體的으로 考察하여 보면 比較的 不適應 傾向을 보이고 있다.

(생각보다 좋다가 15.5%, 생각보다 못하다가 32.5%)

(2) 性別로 보면 男學生보다 女學生이 適應이 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專攻選擇의 動機

(1) 全般的으로 考察하면 專攻學科 선택동기는 適性에 맞아서 (31.8%), 展望이 밝아서 (21.6%)의 順으로 나타났다.

(2) 性別로 살펴보면 男學生들은 適性에 맞아서, 성적에 맞추려고, 展望이 밝아서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女學生에 있어서는 適性에 맞아서, 성적에 맞추려고, 권유에 의해서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4. 學科選擇에 影響을 끼친 사람

(1) 全般的으로 살펴보면 自己自身 (58.2%), 父母兄弟 (18.2%), 高校선생님(14.4%)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性別로 보면 男·女學生 共히 自己自身, 父母兄弟, 高校선생님의 順으로 나타났다.

5. 專攻學科에 對한 滿足度

(1) 全般的인 傾向을 살펴보면 比較的 滿足한 편으로 나타났다. (滿足 35.5%, 不滿足 21.7%).

(2) 性別로 比較해 보면 男·女學生 共히 比較的 滿足한 편으로 나타났다.

6. 專攻學科에 對한 不適應 要因

(1) 全般的인 不適應 要因으로는 施設 및 教授 (32.3%), 展望이 밝지 못해 (14.6%) 適性에 맞지 않음 (11.6%), 學科內容이 생각과 달라 (13.9)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性別로 考察해 보면 男學生은 施設 및 教授, 展望이 밝지 못해, 適性에 맞지 않음, 學科內容이 생각과 다름의 順이며, 女學生들은 施設 및 教授, 學科內容이 생각과 다름, 展望이 밝지 못해서 順으로 나타났다.

7. 現在의 感情

(1) 全般的인 傾向을 살펴보면 本 大學에 入學한 것은 잘했다가 17.9%인 반면 他 大學으로 옮기고 싶다는 학생이 20.3%를 보여주고 있어, 기회가 있으면 전학하고 싶은 傾向으로 나타났다.

(2) 性別로 比較해 보면 男學生들은 전학을 원하고 있지만 女學生들은 本 大學에 入學한 것을 잘했다고 反應을 보이고 있다.

8. 卒業後의 專攻活用 與否

(1) 全般的으로 보면 專攻分野로 나가겠다 (67.5%), 狀況에 따라 專攻을 活用하겠다 (23.1%), 專攻分野로 나가지 않겠다 (8.1%)의 順으로 보여주고 있다.

(2) 男·女學生別로 比較해 보면 專攻分野로 나가겠다가 男學生 65.1%, 女學生 71.8%

로서 男學生보다 女學生이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9. 校內生活의 重點方向

(1) 全般的인 傾向을 살펴보면 就業對備(29.0%), 教養知識探究(24.1%), 學科工夫(17.8%), 進學準備(11.1%), 留學準備(10.7%)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2) 性別로 比較해 보면 男學生(31.6%)이 女學生(24.4%)보다 就業對備에 對한 學習을 하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10. 教授와의 對話

(1) 全般的으로 살펴볼 적에 教授와의 對話가 부족한 傾向임을 알 수 있었다. (50.5%)

(2) 性別로 比較하여 볼 때 男·女學生 共히 教授와의 對話頻도가 낮은 傾向으로 나타났다 (男學生 50.4%, 女學生 50.6%).

11. 先輩와의 關係

(1) 全般的인 傾向은 先輩와의 人間關係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64.7%)

(2) 男·女學生別로 比較해 보면 男學生이(67.4%), 女學生(59.8%)보다 比較的 원만한 傾向으로 나타났다.

12. 現在 大學生活의 問題點

(1) 現在 大學生活에 있어서 問題點을 考察해 보면 全般的으로 學費 및 용돈調達(31.0%) 教授와의 關係(18%), 學科工夫(15.2%), 異性交際와 交友關係(10.1%)의 順으로 나타났다.

(2) 性別로 比較하여 볼 때 男·女學生 共히 學費 및 용돈調達, 教授와의 關係등을 現在 大學生活의 問題點으로 指摘하고 있다.

13. 問題의 解決을 爲한 相談者

(1) 問題解決을 위한 相談者를 全般的으로 考察해 보면 친구(65.7%), 父母兄弟(18.2%) 先輩(9.0%), 教授(3.0%)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問題가 있을 경우에는 친구들과 議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性別로 보면 男·女學生 共히 친구를 議論對象者로 생각하는 것이(男學生 64.0%, 女學生 68.7%)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女學生들이 男學生보다 조금 높은 傾向임을 알 수 있다.

14. 學費 調達方法

(1) 學費調達 方法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은 父母(79.5%), 獎學金(6.8%), 自己自身(5.2%), 兄弟(3.2%), 친척 또는 친지(1.7%)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獎學金 制度 및 아르바이트기회를 擴充해 주어야 될 것임을 엿볼 수 있다.

(2) 男·女學生別로 比較해 보면 女學生들이 男學生들 보다 부모님으로부터의 調達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自己自身の 부담에 있어서는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약간 높은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15. 아르바이트의 目的

(1) 全般的인 傾向으로 용돈調達(29.2%), 社會經驗(22.5%), 學費調達(14.9%)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2) 男·女學生別로 比較해 보면 용돈調達에 있어서는 女學生(30.7%)이 男學生(28.3%)보다 다소 높은 傾向이나, 社會經驗을 目的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에 있어서는 男學生(25.3%)이 女學生(17.4%)보다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16. 將來 원하는 職業

(1) 장래 職業觀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은 教育者(25.4%), 公務員(9.0%), 事業家(7.6%), 社會事業家(7.4%), 農水產業(7.0%), 會社員(5.4%), 藝術家(3.6%), 觀光業(3.6%), 政治人(3.5%), 行政家(2.6%), 科學者(2.4%), 軍人(1.9%), 宗教人(1.0%)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將來 職業에 對해서 教育者를 希望하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2) 性別로 살펴보면 男學生은 事業家, 教育者, 農水產業, 公務員, 社會事業家, 會社員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女學生은 教育者, 社會事業家, 公務員, 藝術家, 事業家, 觀光業의 順으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다.

17. 進路 指導의 希望與否

(1) 進路指導에 對한 希望與否에 對해서는 大部分의 學生들이 願하는 傾向으로 나타나고 있다(원한다 76.1%, 원치않는다 8.6%).

(2) 性別로 比較해 보면 女學生(82.6%), 男學生(72.4%)보다 比較的 원하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18. 本 大學의 發展可能性에 對한 생각

(1) 本 大學의 發展可能性에 對하여 全般的으로 볼때 本校는 앞으로 더욱 나아질 것이 다(71.5%), 現狀態의 維持(12.5%), 조금 나빠질것이다(5.1)의 順으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本 大學의 發展性에 對하여 樂觀視하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2) 性別로 볼 때 男·女學生 共히 本 大學의 發展性에 對하여 樂觀視하는 傾向으로 나타나고 있다.

19. 좋은 大學의 要件

(1) 좋은 大學에 對한 要件選擇을 살펴보면 全般的으로 勉學家團氣(22.0%), 學生과 學校에 對한 一體感(19.6%), 教育施設(15.8%), 유명한 教授(14.6%), 傳統(10.7%)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2) 性別로도 男·女學生 共히 全般的인 傾向과 같은 順으로 反應을 나타내었다.

Ⅳ. 提 言

(1) 大學生活에 對해서는 大體的으로 不適應의 傾向을 보여주고 있어 이의 具體的 原因科明과 解決策이 要한다.

(2) 이 調査研究는 1學年 新入生때 實施했던 같은 集團에 對해 調査한 것으로서 入學後 1年이 지났으나 入學後의 適應에 對해서 否定的으로 反應하고 있어 (32.5%) 適性도 고려치 않고 合格이나 해보자는 結果가 큰 要因으로 作用하지 않았나 여겨지며 이들에게 하루속히 大學生活에 適應도록 活潑한 생활活動을 유도하며 건전한 大學風土造成을 꾀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3) 專攻學科에 對해서는 大體的으로 滿足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서 꼭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不滿足의 原因으로는 施設不足이 크게 作用하고 있어 이 解決策이 크게 바래지고 있다.

(4) 現在の 感情을 묻는 設問에 對하여 機會가 있으면 他大學으로 옮기고 싶다는 學生이 20.3%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에게 教授와의 個人相談을 통하여 安定된 學究熱에 專念도록 指導하기를 바래진다.

(5) 校內生活의 大部分을 就業準備, 教養知識探究로 보내고 있어 大學當局에서는 Curriculum을 보강하여 보다 광범위한 教養科目설치와 學科에서는 나름대로 就職準備에 對한 特別教育 Program이 운영 되기를 바래진다.

(6) 教授와의 對話는 그런대로 바람직하나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對話의 機會를 마련하여 實行하는 것이 더욱 기대된다.

(7) 先輩들과의 人間關係가 원만한 것으로 봐서 個人을 자세하게 理解하고 바람직한 生活指導를 위해 이들을 活用함이 바람직하다.

(8) 現在 大學生活의 問題點으로는 學費 및 용돈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大學當局에서는 부직알선의 問題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解決토록 하는 計劃과 實踐이 바래진다.

(9) 進路指導에 對해서는 大部分의 學生들이 원하는(76.1%) 실정으로 봐서 大學當局에서는 이에 對한 배려도 要望된다.

(10) 理想的인 대학요건으로 면학분위기를 우선순위로 지적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면학분위기를 계속 조성시킬 수 있는냐의 문제에도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權純明, 1982. 忠南大生の 意識構造 및 價値觀에 關한 研究, 忠南大學校 새마을論叢 第3輯.
2. 金承浩, 李祺完, 梁京柱, 1983. 校內 새마을運動의 主導方案, 새마을運動 研究論叢 第8輯 2卷.
3. 金忠起, 1983. 現代社會의 生活指導教育, 學文社.
4. 내무부, 1980. 새마을運動 10年史.
5. 安秉基, 1982. 忠南大學校의 成長發展을 위한 새마을運動의 課題에 關한 考察, 忠南大學校 새마을論叢 第3輯.
6. 嶺南大學校 學生 生活研究所, 學生研究, 13, 1981.
7. 李祺完, 1984. '83年度 新入生 意識構造, 濟州大學校 새마을研究 論文集 第1輯.
8. 李星珍, 1978. 國家發展과 靑少年, 培英社.